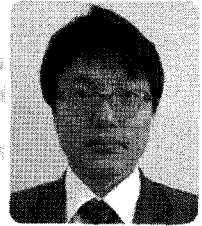


[특집: 구제역 종식 이후 축종별 사료산업 전망]

시 이후 오리 사료산업 전망



유 선 종 박사
동아원㈜
기술연구소 양계 R&D

1. 머리말

2000년대 들어 오리산업은 타 축종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0년 농업생산액 상위 10개 품목에도 들지 못하던 오리 생산액은 2005년 6,490억원을 기록하며 농업생산액 상위 10위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1조 2,323억원으로 2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며, 농업생산액 상위 7위까지 차지하였다(농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품 주요통계).

그러나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곡물시장의 수급 불안정, 바이오에너지의 수요증가 및 미달러화 약세에 의한 국제 곡물가의 상승세는 오리산업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3년부터 발생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라는 큰 시련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부담에 의한 소비 위축 및 생산기반 위축 등의 문제로 발전 일로의 오리산업의 발목을 번번히 잡은 바 있다.

2010년 12월 30일 또 다시 발생한 HPAI는 가금류 중 특히 오리에 피해가 집중되면서(매물 처분 278만여 수, 2011년 4월 현재), 오리의 생

산기반까지 흔들리는 사상초유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자칫 오리고기의 건전한 수급조절 실패로 그 동안 이루어온 오리생산 정책부분의 발전이 위협을 겪을 수 있는 어려운 국면이다.

2011년 3월 4일 종오리 농가에서 HPAI가 확진된 이후 오리에서는 한 달여 동안 추가 발생 신고가 없는 상황이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HPAI(산란계, 4월 8일)가 지속되고 있다. 언제 추가 발생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속히 HPAI가 완전 종식되기를 바라며, 2011년 HPAI 종식 이후의 오리산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오리산업 관련 현황 및 전망

2.1. 2011년 HPAI 피해현황 (4월 5일 현재)

2010년 12월 30일 발생한 HPAI는 현재도 완전 종식되지 않았으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HPAI에 의해 매몰처분된 가금류는 총 627만여 수이며, 이중 오리는 278만여 수(육용오리 2백여 만수, 종오리 55만수 매물)로 총 매몰된 가금류의 44%을 차지하고 있다.



2.2. 오리사육 가구수 및 사육수수

오리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리 사육농가의 전업화 및 대규모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1998년 1% (105호)에 불과하던 만수 이상 사육농가의 비율은 2005년 4% (373호)까지 증가하였고, 2009년 11% (581호)까지 증가하였으며, 만수 이상 사육 농가의 사육수수는 1998년 처음으로 전체 사육수수의 50% 이상을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전체 사육수수 1,273만여 수 중, 88%(1,100만 수)를 11%의 사육농가에서 생산할 정도로 전업 및 대형화되었다.

종오리 수입실적은 2009년 F1 종오리 입식 금지 방침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41만여 수의 암컷 종오리가 수입되어, 2010년 12월에는 74.8만 수의 종오리가 사육되었다. 그러나 HPAI의 발생에 의해 종오리가 55만여 수가 매몰처분 되면서, 현재 종오리 사육 수수는 전년보다 1% 감소한 58.6만 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중 산란중인 종오리는 43.4만 수로 파악되고 있다(2011년 2월).

HPAI 발생으로 인한 종오리 감소와 종란의 폐기 처분으로 2011년 오리 병아리 생산은 376.7만수로 전년 대비 16.8% 감소하였으며, 3월 병아리 생산은 생산성 저하에 의한 영향까지 받아 전년 대비 26.7% 감소한 450.3만수로 추정된다.

2011년 1분기 종오리 수입실적은 총 14.2만수로 전년대비 61.8%가 증가하였으며, 1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오리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79만수, 전년 대비179%), 3분기 이후에는 전년의 종오리 사육수수 수준(144만수)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3. 오리 소비현황 및 오리 생체가격

1인당 오리 소비량은 2000년 1.0 kg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 HPAI의 여파에 의해 급감하였고, 2005년 이후 다시 소비량이 증가하여 2009년에는 2.1 kg까지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웰빙 열풍에 의해 오리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며, 2.8 kg까지 소비가 증가하였다.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분기에는 오리고기 대체 수요가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PAI에 의한 국내 오리고기 생산의 감소로 2011년 3월 오리고기 수입은 전년대비 24배 증가한 569톤이며, 오리고기의 공급부족에 의해 4~6월 오리고기 공급량은 전년보다 7.3% 감소한 19,528톤으로 전망된다.

오리 생체(3 kg)의 연평균 가격은 오리 소비 증가에 비례하여 2005년 5,100원대에서 2009년 6,500원대까지 상승하였으며, 2010년에는 7,2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 HPAI 발생 이후에도 구제역에 대한 대체수요 및 오리고기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오리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오리 생체 3kg당 산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6% (전년 대비 28.3%) 상승한 9,280원이다.

3월 중순 오리 산지가격이 8,700원에서 9,700원으로 11.5% 상승한 뒤 현재 (4월 8일)까지 유지하고 있다. 3분기 오리 산지 가격은 9,900원~10,200원으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농촌경제연구원).

2.4. 곡물가격 현황

2010년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나타냈던 국제

곡물 가격은 러시아의 밀 생산량 감소에 의한 수출금지 조치 이후 밀과 더불어 옥수수 및 대두의 가격이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1월 평균 국제 옥수수 가격은 톤당 250달러로 전년 평균 대비 48.7%, 대두의 경우 511달러로 전년 대비 32.9%, 국제 밀의 선물가격은 295달러로 전년 평균 대비 38.5%, 상승하였다.

2011년 국제 곡물가격은 곡물 재고율 감소, 바이오 에너지 수요의 증가 및 곡물 선물 투기 증가에 의해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10/11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69달러, 밀 선물가격은 275달러, 대두의 선물가격은 517달러로 전망된다(농촌경제연구원).

이에 따라 이미 한 차례의 가격 인상이 있었던 배합사료 가격이 하반기에 재인상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배합사료 시장 및 오리 사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5. 배합사료 생산량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오리 사육수수의 급증에 따라 2005년 월평균 22,000톤에서 2010년 52,000톤으로 24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배합사료 총 생산량(1700만톤, 2010년)의 3.7% (63만톤), 양계 배합사료 총 생산량 (460만톤, 2010년 기준)의 15%에 이른다. HPAI 발생으로 인한 오리 사육수수 감소로, 2011년 2월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3% 감소한 36,000톤이며, 이중 산란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4,700톤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으나, 기타 오리 배합사료의 생산량은 31,000톤으로 전년 대비 17%가 감소하였다.

종오리 입식 수수와 HPAI로 인한 종오리 매몰처분 수수를 이용한 병아리 생산 잠재력으로 추정해볼 때, 2분기 of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은 2009년 6월 수준인 월 46,000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20~30%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부터 회복되어 4분기에는 전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인 월 55,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1년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에 의하면, 국내 오리 생산량은 2021년까지 연평균 1.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오리 배합사료 생산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3. 맺음말

2010년 여타 축종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던 오리산업은 2000년대 들어 네 번째 발생한 HPAI에 의해 다시 한번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질병에 의한 피해는 오리 사육농가의 규모화와 맞물려 과거에 비해 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오리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오리산업의 생산기반인 종오리에 대한 피해는 복구기간이 길어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국제 곡물가의 고공행진은 배합사료의 가격의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어 오리 사양가의 주름과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료산업은 IMF와 국제금융사태 등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



러나 이에 앞서 AI와 같은 오리산업의 변수의 최소화가 급선무이다. 오리 산업 기반의 안정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 종사자와 정책 관리자 모두가 질병 및 축산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종오리 및 부화장의 위생관리 강화, 육용 오리 사육농가의 철저한 사양관리, 사료산업 종사자의 무항생제 면역강화사로 개발, 유통업계의 책임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더 이상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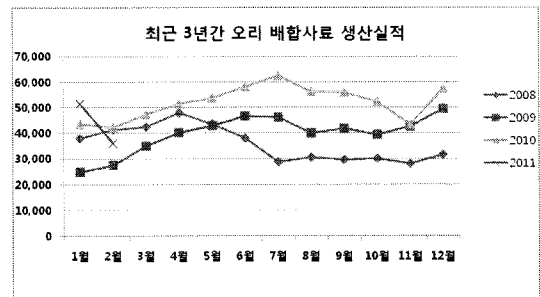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와는 달리 HPAI 발병 이후에도 오리고기의 소비 감소가 크지 않고, 웰빙 요구에 따른 소비자의 오리고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리고기 소비패턴의 다양화는 계절적 소비 편중을 완화시키고 있어, 오리 생산 기반(사육, 배합사료 생산 및 가공)이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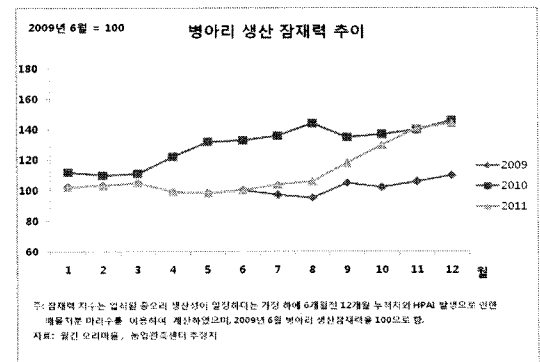
따라서, 오리산업 관련 종사자 모두가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변화하고 개선한다면, 미래의 소비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오리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다.

2011년 HPAI 피해현황 (4월 5일 현재)

축종	농장	수수
종오리	36	546,526
육용오리	127	2,241,853
산란계	30	1,769,223
종계	6	366,295
육계	21	935,373
토종닭	35	91,411
매추리	3	298,520
기타	11	21,107
계	269	6,270,308



※ 자료: 한국 오리협회



※: 잠재력 지수는 일차원 증오리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6개월간 12개월 농적지와 HPAI 발생으로 인한 매출직분 마릿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나, 2009년 6월 병아리 생산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월간 오리매출, 농림수산컨설팅중앙지

오리산업 현황

년도	농가수	오리 사육수수	종오리수입실적(수)	1인당 소비량(g)	오리생체가격 (원/3kg)
2005	8,921	8,388,747	136,728	970	5,175
2006	8,456	9,386,190	157,080	1,230	5,548
2007	7,184	10,513,308	173,120	1,520	4,960
2008	5,192	9,708,215	179,762	1,750	5,430
2009	5,277	12,733,275	271,210	2,110	6,552
2010	5,200(추정)	13,740,000	417,230	2,780	7,254

※ 자료: 한국오리협회